
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	
 금융감독원	<b>보도</b>	2021.8.6.(금) 조간	배포	2021.8.5.(목)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 성 기(02-2100-2630)	<b>담 당 자</b>	변 후 정 사무관 (02-2100-2636)
	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 범 준(02-3145-5700)		한 창 훈 팀장 (02-3145-5687)
	은행연합회 상무 이 경 희(02-3705-5151)		박 진 향 부장 (02-3705-5040)
	금융투자협회 상무 이 봉 헌(02-2003-9014)		김 동 오 부장 (02-2003-9420)
	생명보험협회 본부장 김 인 호(02-2262-6645)		김 윤 창 실장 (02-2262-6643)
	손해보험협회 상무 이 재 구(02-3702-8550)		백 승 욱 부장 (02-3702-8670)

## 제 목 : 판매현장에서 합리적인 금융상품 설명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상시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.

### - 「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」 첫회의 개최 -

- 지난 7.14일 발표한 **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적시성·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**하였습니다.
- **민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하고 금융위 옴부즈만의 최종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확정**합니다.
- 우선 금년에는 **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 방안을 중점 검토**해나갈 계획입니다.
  - 이를 위해, **금융소비자의 온라인 거래시 행태조사**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.(연내 완료 추진)
- 앞으로 동 협의체를 통해 **국내외 모범사례, 민원·분쟁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**해나가겠습니다.

## 1. 개 요

- 금융위·금감원은 금소법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 한편, 설명의무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
  - ‘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’을 발표했습니다.(‘21.7.14일)
- 이에 따라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축적되는 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적시성·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
  -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‘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’를 발족하였습니다.

### [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첫회의 개요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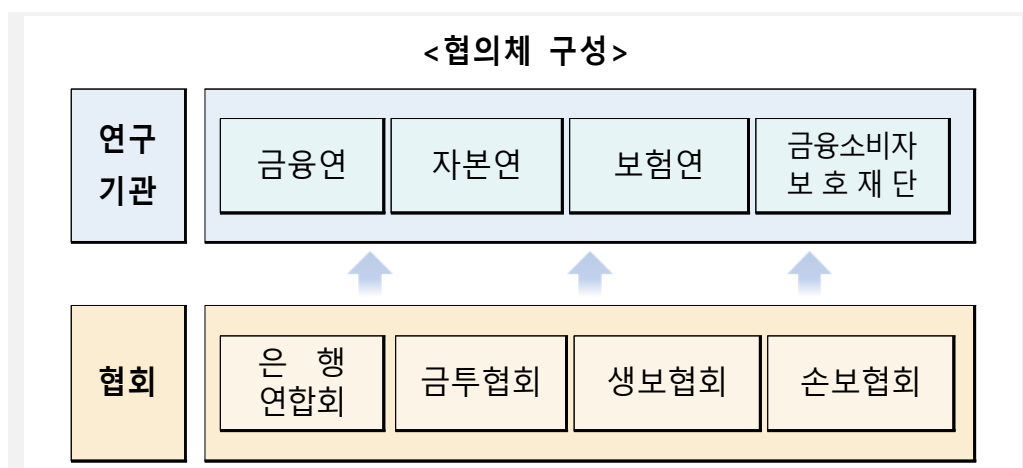
- ◆ 일시/장소: '21.8.5(목) 10:00 ~ 11:00 / 영상회의
- ◆ 참 석: (주재)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 
(연구원 등) 금융연구원, 자본시장연구원, 보험연구원, 한국금융 소비자보호재단  
(협회)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
- ◆ 안 건: 협의체 운영계획 및 '21년 중점검토사항

## 2. 협의체 구성 및 역할

### 가. 구 성

- 협의체는 4개 연구기관과 4개 협회\*로 구성됩니다.

\*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4개 협회 외 기관(여신금융협회, 저축은행중앙회, 신협중앙회, 대부업협회, 핀테크 산업협회 등)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



## 나.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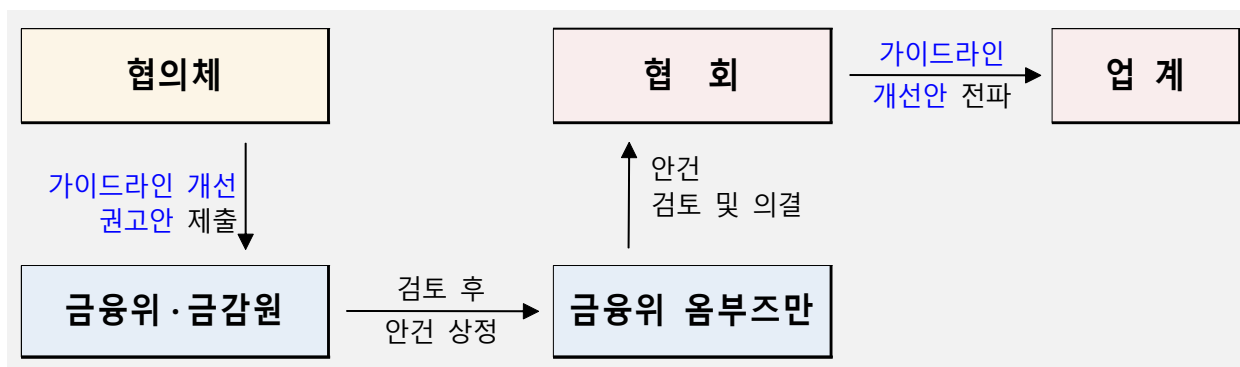
- ① **연구기관**은 모범사례와 민원·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합니다.
- ② **협회**는 안전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·분쟁사례 등 실태 조사 자료를 협조하며,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.

연구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모범사례 및 민원·분쟁사례 등 분석*, 국내외 실증연구</li> <li>· 사례분석을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 마련</li> </ul>
협 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요현황 및 실태조사 관련 업계 자료 등 협조</li> <li>·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피드백 등</li> </ul>

\* 금감원 협조를 통해 감독·검사결과도 분석대상에 포함

## 3. 운영 방안

- ① **(운영주기)** 협의체는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(매년 5월 원칙)합니다.
- ② **(운영절차)** 협의체 + 금융당국 + ombudsman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.



① **협의체**는 현장 실태조사 및 국내외 실증연구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며, 그 과정에서 각 협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합니다.

② **금융위** **옴부즈만**은 협의체에서 제출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이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방안\*인지를 검토 후 최종 확정합니다.  
(금융위·금감원 안전 검토 지원)

\*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금소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금융거래 불편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

③ **각 협회**는 확정된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업계에 전파합니다.

#### 4. '21년 중점검토사항

□ 협의체에서는 우선검토사항으로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##### [ 세부과제(예시) ]

###### ①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 실시

- 온라인 판매 환경에서, 소비자들은 대면채널 이용시와는 다른 의사 결정 행태\*를 보이는 경향

\* '20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펀드투자자 조사 결과, 온라인 채널 가입자의 50.6%가 "투자설명서나 약관 파일을 열어보기만 하고 읽지 않았다"고 답변

⇒ 효과적인 이해를 위한 유인체계(넛지) 마련

###### ②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설명서 작성기준 제안

- 온라인 판매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텍스트 위주로 정보를 전달 하므로, 소비자의 역량에 따라 이해도의 편차가 큼\*

\* 정해진 내용을 획일적으로 전달하고 고객의 반응을 감안한 응대가 어려움

⇒ 소비자의 금융 역량, 디지털 역량 및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명서 작성기준 마련

### ③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고객 소통방안 제시

- 비대면 채널에서 자동화 방식으로 판매가 진행되는 특성상, 양방향·실시간 소통이 부족

\* '20년 펀드투자자 조사 결과, 온라인 펀드몰 이용시 불편사항으로 "인터넷 사이트 이용 중 모르는 사항에 대한 Q&A가 어렵다"는 응답이 1위(35.4%)

⇒ 비대면 채널에서의 고객 소통창구 마련 방안(예: 챗봇) 제시

## 5. 향후 추진계획

### ① '21-'22년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(~8월 말)

- 협의체 최초 간사기관(금융연)이 협의체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·금감원과 공유하겠습니다.

### ②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(9월~11월)

- 협의체는 온라인 판매과정 전반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행태조사를 실시하고,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'22.5월(잠정) 까지 마련하겠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